



박태원 교수의

불교를 보는 인생

29

'1973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는 것은 기억이다. '백은대 바라보며 풀밭 위에 누워 텅골고, 전날 치른 농구 결승전이 끝난 후 상대학교 응원단과 장충체육관 주변에서 벌어진 무용담들을 과장하여 떠들던 그 들뜬 시절'은 추억이다. 지난 정보의 단순한 내력과 출력이 기억이라면, 경협이 내면화되어 정서가 된 것을 회상할 때를 추억이라 하겠다. 기억은 무미건조하나 추억은 색깔이 있다. 정서가 된 추억은 삶을 곱게 채색한다. 정성이 깃든 추억은 더욱 아름답다.

도 흠날리는 눈발도. 땅과 함께 어울리던 농업사회에서는 정성이 자연스러웠다.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땅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정성을 몸에 익힌 어른들은 아직도 물건 하나 함부로 버리지 못한다. 연필 하나 수저 한 벌에도 '아끼는 정성'이 배어있다. 사람에게든 물건에게든 '차마 함부로 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다. 느낌, 아날로그, 낭만은 그렇게 정성에 닿아있다. 경제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정성이었기에, 그 시절의 일과 작품과 지혜들은 긴 생명력과 감동시키는 힘으로 가득하다. 소재와 기법이 눈부시게 발달했지만, 오늘날의 작품들에서는 감동을 받기가 어렵다. 아직도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울림은 고대의 작품에서 나온다.

뒤늦게 '최도원'이라는 일본 영화를 보았다. 밤늦게 귀가하면서 빌려온 비디오 테이프를 다음 날 보러 하다가 잠시 맛만 보자며 시작했는데, 끝내 눈을 못 떴고 졸린 듯 보았다. 새벽 2시였다. 추억으로서의 인생, 그 아날로그적 정서와 미학이 따뜻한 승용처럼 훈훈하게 담겨있었다.

작품에는 반드시 정신이 반영된다. 근대 이후 자본주의의 경제 정치는 알게 모르게 정성을 변질시켜 감동을 앗아갔다. 모든 것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버리는 상업정신은 정성마저 변색시켜 '올림의 힘'을

감동의 원천 하나는 정성이었다. 평생 답답할 정도로 최도원 외길에만 매달려온 사람, 그러느라 결혼

정성스러운 삶 '감동'

정성스러운 삶 '감동'

17년만에 얻은 늦둥이 딸아이의 감기를 제 때 볼보지 않아 여되고, 병든 아내의 입증조차 지키지 못한 사람. 그러나 그의 삶은 정성스러웠다.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는 시골 역장의 단순한 업무를 한 치 소홀함 없이 기우어 가는 정성, 배려와 절제 속에 인간애와 신뢰를 눈치럼 소복이 쌓아 가는 정성. 노선 폐지로 조기 퇴역을 앞둔 어느 날, 깜찍한 어린 계집애와 초등학교, 고교 여학생이 매일 차례로 나타난다. 아내가 입던 조끼를 걸치고 식사 준비를 해 놓는 여학생의 얼굴에서 그는 아내의 모습을 본다. 실제처럼 나타난 그들은 죽은 딸아이의 환영이었다. 쫓겨갈 때 어린 딸의 성장 과정을 차례로 보여주느라 나타난 딸의 환영임을 알아차리고는 "제대로 볼보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는 아빠의 품에 안겨, 딸은 이렇게 말하고 사라진다. "그래도 아빠를 사랑해요." 이튿날 플랫폼 눈 속에 묻힌 역장의 도자. 정성으로 일군 삶의 추억들과 함께 그는 그렇게 눈에 안긴다. 정성은 천지만물을 감동시키는 법. 정성스럽게 삶을 가꾼 인간을 만물은 따뜻하게 깨안는다. 동료도 귀신

절이 좋은 이유 하나 '인간의 정성' 과 만남 거서시켰다. 심혈을 기울인 경이로 문화와 문명의 작품들이 속출하건만, 아직도 영혼을 감동시키는 영성의 힘은 옛것만 못해 보인다. 정성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도 절이 좋다. 아직 절에서는, 절 사람들에게서는 정성이 살아있다. 맛있게 먹나 살피는 공양주 보살님의 눈에, 손수 차 다려 내놓으시는 스님의 손에, 돌아가는 신도들을 일일이 배웅해 나오는 스님의 마음에, 어느 것 하나 함부로 취급되지 않는 도량의 풍속에서, 변질 안된 인간의 정성을 만난다. 느낌, 정성, 낭만, 아날로그의 품격이 절에는 살아있다. 문헌에, 일에, 사람에 건성으로 넘나드는 부박(浮薄)한 마음들, 정성이 변질되고 말라버린 '잠기 힘든 존재의 가벼움'에 지친 예민한 심성들을 어디에서 푸근히 안아줄까. 절 집안 그 아늑한 정성의 품이 우리를 빈다. **울산대 철학과 교수**

“참나 찾자”... 전국 50여곳 운영

참불자의 길

참선 10-재가선방

참선은 우리 모두가 본래 자신으로 돌아가는 자각의 실천수행이다. 또한 하루하루 이어지는 일상생활속에서 자기자신을 돌아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런가닭에 삶의 중심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현대인들이 내면의 참나를 찾는 수행처로 재가선방을 찾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유니텔 불교동호회 등과 같은 신행단체들도 회원들의 신심함양을 위해 정기적인 참선수행을 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센터 강좌와 외국인 한국불교협회 등에서도 참선은 중요한 프로그램의 하나가 되었다.

매년 봄과 가을 선화강좌를 열어, 참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을 지도하는 선학원 선정회를 비롯해 현재 전국 50여 사찰과 단체에서 일반인을 위한 선방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2-3년 사이 참선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찰이나 단체뿐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선방도 늘고 있다. 이들 선방 가운데는 주말 상설수련회와 참선강좌, 참선법회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도하는가 하면, 등 하안거 때와 같은 특정 기간에만 선원을 일반에 개방하기도 하고, 또 1년 365일 누구나 참여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곳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숨가쁘게 진행되는 일상 속에서 한순간 만이라도 내면의 참나를 찾으려고 한다면 틈을 내어 가까운 시민선방을 찾아가자. 참선을 통해 일반인이나 재가불자들을 수행의 길로 이끌고 있는 전국의 주요 시민선방을 소개한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nia.com)

전국 주요 재가선방

Table with 3 columns: 단체명 (Organization Name), 내용 (Content), 연락처 (Contact Info). Lists various Buddhist centers and their programs across different regions.



‘서장’ 통한 선 공부 ⑥

증시량에 대한 답서(4)

좌선도 방편...내면의 눈에 맡겨라



김태원 부산대 강사·철학

가 없는 것이므로 만약 이것을 진실하다고 여겨 집착한다면 생사심(生死心)이 생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자연체(自然體)에 머물러 그것을 구경법(境法)으로 여겨 이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병은 도를 배우는 사람의 탓이 아니라, 모두 눈먼 스승이 잘못 가르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관(觀)하고 저렇게 유지하며, 이렇게 챙기고 저렇게 놓아버려야 마음을 깨닫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견해와 집착을 풀어 주기 위한 방편상의 말일 뿐, 공부인이 진실로 의지할 진리는 아니다. 방편이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가짜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방편이 인연이 되어 도(道)에 들면 다행한 일이지만, 방편을 도에 들어가는 참된 길이라고 여겨 붙잡고 의지한다면 방편은 또 하나의 장애가 될 뿐이다. 이처럼 선문에 들어가는 정해진 길이나 문은 없기 때문에 선문

捨選擇)의 행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진실을 깨닫기만 하면 어리석음은 본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조용한 곳에서 좌선(坐禪)하는 행위도 "병을 따라 약을 쓰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만약 그것이 곧 선이라거나 선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긴다면 이것은 수단에 머물러서 목적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짓일 따름이다. 선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편을 얼마나 오래 동안 갈고 닦았느냐가 아니라, 선을 향한 열마나 "진실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것이다. 문 없는 관문(無門關)을 통과하는 길은 눈을 밖으로 향하여 이리저리 살피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눈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이다. 원래 갖추고 태어난 내면의 눈만이 본래부터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Large advertisement for (주)한국불교건축공예. Features a map of Korea with callouts to various construction sites, a list of features like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입니다',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pany.